

# 《신여성》, 해석의 과잉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 주 리 \*

## 1. ‘신여성 현상’, 근대의 과잉

청년회에 열린 추기 음악회가 아직 다 파하기도 전에 부인석에 앉았던 순영은 슬며시 일어나서 소곳하고 사뿐사뿐 걸어 밖으로 나온다. 그의 회색 삼팔 치마는 흐느적흐느적 물결이 치는 대로 사삭하고 연한 소리를 내며 걸음발마다 향수 냄새가 좌우편 구경군의 코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잠깐 무대에서 눈을 돌려 순영을 바라보고는 픽픽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하기도하였다.

『순영이다.』

『저게 김 순영이다.』

하는 속삭임이 학생들 중에서 들린다.

과연 순영은 이날 밤에는 더욱 어여뻐다. 호리호리한 키와 날씬한 몸매시, 암전하게 틀은 윤이 흐르는 머리 모양이 오늘따라 순영은 더욱 어여쁘다. 바탕도 어여쁜 얼굴이지만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도록 순영은 화장에 힘을 쓰고, 또 화장하는 솜씨가 있으며 옷감 고르는 것이라든지 옷고름 매는 것까지 모두 남보다는 모양이 있었다. (중략) 게다가 제주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한다. 진실로 서울 장안에 젊은 사람치고 순영의 이름을 모를 사람은 없다.

— 이광수, 『재생』(1925) (『이광수 전집』 2, 삼중당, 1963, 7쪽)

---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

식민지 시대 새로운 교육(재주, 공부, 음악)과 외모(회색 삼팔치마, 향수, 호리호리한 키와 날씬한 몸매시, 암전하게 틀은 윤이 흐르는 머리 모양, 화장, 옷고름 매는 법), 교양(화장솜씨, 옷감 고르는 법, 음악회)으로 무장한 여학생(신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녀를 바라보는 신지식층 남성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픽픽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하기도 하는)과 반응을 통해 그녀를 서울 장안의 유명인사이자 스캔들의 대상이며 시각적 소비의 대상, 냉소 어린 비판의 대상으로 선 규정한다. 1920-30년대 잡지에 흔히 등장하는 탐방기, 정탐기, 소문기사류는 이광수, 염상섭 등 남성 작가들의 소설과 함께 신여성 담론을 형성하며, 범람하는 신여성 담론 속에서 실체로서의 신여성은 어느 순간 모호한 존재로 남겨진다. 나혜석이나 김원주 등 신여성의 발화는 그들이 식민지 시대 대다수의 신여성을 대변하는가라는 의구심을 동반하기에 실체로서의 신여성은 여전히 괄호 쳐진 존재로 남는다.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신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인 신여성으로서 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윤심덕, 허정숙, 주세죽, 최정희, 모운숙 등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담론(또는 도상)으로서의 신여성, 신여성 표상, 신여성 재현 양상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문학, 사회학, 역사학, 언론학, 여성학, 예술사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신여성’이라는 개념의 출발로부터 이 개념이 세부적으로 여학생, 모던 걸, 마르크스 걸, 현모양처, 군국의 어머니 등으로 정착 또는 변모(변질)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자유연애, 붉은 연애, 정조 문제, 결혼과 이혼, 미혼모, 스위트홈, 히스테리, 유행과 패션, 취미와 교양, 섹슈얼리티와 젠더, 육체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신여성이라는 연구 주제가 가진 이러한 광범위함이란 신여성이 구체적인 하나의 집단, 실체를 가정하지 못하는 모호함을 갖기에 얻어지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신여성은 식민지 체제와 결부된 사회 현상이며, 신문과 잡지, 시와 소설 등의 영역에서 재현된 대상이고, 나혜석과 같이 소문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 실제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며 분과 학문들 간 소통 통로가 된다.

김수진의 『신여성, 근대의 과잉』은, 사회학 전공자인 저자가 “우리 근대사의 속살에 뿌리내린 문화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신여성이라는 단어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신여성 현상)”을 “근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지층과 젠더 체계의 저변을 드러내는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일본 제국-식민체제와 문명개화이념에 맞닥뜨린 신지식층의 에피스테메”라는 접근 통로를 통해 잡지 《신여성》 속 말과 이미지, 욕망을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신여성 현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는데, 먼저 1부에서는 신여성 담론장의 형성과정과 구조를 살피는 가운데 신여성 담론 생산의 중심으로서 잡지 《신여성》의 성격(출판사, 필진, 편집자, 발행사항, 독자층 등)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다. 2부에서는 잡지 《신여성》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신여성 상의 세 가지 범주를 확정한다. 《신여성》의 담론을 이끌어간 신지식층에 의해 개조의 주체로 가정되는 ‘신여자’, 모방의 병리적(부정적) 주체로 간주되는 ‘모던걸’, 모방의 바람직한(긍정적) 주체로 간주되는 ‘양처’가 그것이다. 3부에서는 서구/비서구, 제국/식민지라는 이중의 틀 속에서 영국, 일본, 인도, 중국의 신여성 현상을 비교, 대조해 보인다. 이러한 비교 대조 작업은 결론에서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현상과 맞물리며 재론된다.

저자는 세계 보편적 현상으로서 신여성의 출현이란 여성의 근대적 지식 소유와 경제적 독립(소비 유행의 주역)의 확보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여학생이나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업여성(중산층을 형성하는)이란 대부분 일본인으로, “사실상 조선에서 신여성은 미미한 수이고 또 미력한 집단”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조선 신여성의 표상은 실체로서의 신여성을 지시하는 것이기보다 ‘계몽적 대중화’의 공간으로 정립된 1920-30년대 담론장의 성격에서 틀지어진

것으로 본다. 개벽사가 간행한 잡지 《신여성》(《부인》 및 《별건곤》의 여성란)은 동경유학생(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펴낸 여러 여성지(3호 잡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까지 독보적인 여성잡지로 군림하면서 신여성과 근대문물을 둘러싼 논란의 장을 도맡았다. 저자는 《신여성》이 여학생을 핵심적 독자층으로 하여 여성운동의 다양한 이념을 포괄하고 정보와 재미를 함께 충족시키는 계몽적 대중지의 성격을 지향하였다고 지적한다. 《신여성》은 잡지 편제에 있어 계몽성과 대중성의 접합이라는 원리를 견지하는 가운데, (특정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 또는 말을 옮길 글인) 논설류, (기행문, 감상문 등) 수필류, (취미와 상식을 위해 마련된 여러 기사들. 기록서사, 야담, 콩트, 격언 등) 취미기사류, (편집국이나 기자 명의 또는 필명으로 작성된 인물, 탐방, 가십, 소식, 여러 가지 정보 등을 담은) 기사류, (시, 소설, 희곡, 동화 등) 문예류, (독자란, 편집 후기 등의) 사고류, 광고의 일곱 가지 읽을거리가 편재해 있었다는 것이다.

《신여성》의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저자는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서 펼쳐진 세 가지 신여성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문명개화론을 받아들인 신지식층의 주도하에 형성된 신여성 담론은 대중적 계몽화라는 신지식층의 목적의식 속에서 먼저 신여성을 ‘신여자’라는 개조의 주체로 호명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누이’라는 호칭 대신 ‘여학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신여자에 대해 “《신여성》은 청년적 연대자인 ‘누이’에게 호소하는 것(연대)이 아니라 여학생을 향하여 바람직한 신여자의 규범을 설파(감시)한다.”(226쪽)는 것이다. 여학생을 ‘미래의 조선을 개조할 신여자’로 호명한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상정하기보다 구여성과 신여성의 대립을 상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구여성의 삶에 대한 고백(수기류), 관찰(실화류)의 서사는 “구여성의 의미를 조선의 후진성 때문에 고통 받고 억압받은 자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신여성을 이들을 구원하

고 이끌어갈 주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276쪽) 고통 받는 구여성의 대립물로서 상상되는 ‘신여자’는 개조의 주체로서 개성과 인격을 각성하고 실력을 양성해야 하며, 자유연애를 통한 자유결혼의 이상을 전유한다.

저자는 조선 신여성 담론장에서 벌어지던 사회문화적 쟁점이 모던걸이 논의되는 1927년 이후 재편된다고 본다. “모던걸을 조선의 현상으로 다루면서 ‘모던’을 숭한 유행과 비평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별건곤》”(281쪽)으로, 저자는 1920년대 중반 출현한 일본의 모던걸이 화이트칼라와 서비스직을 포함하는 신중간층 여성(직업부인층)을 배경으로 했다면 조선의 모던걸 담론은 신중간층이라고 할 만한 여성층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유산자층의 자식 또는 유녀, 기녀, 아니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목한다고 본다. 실제 양장을 하고 도발적 언행과 성적 적극성을 구사하는 여성 집단을 조선 여성 중에 찾기 어려웠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모던걸은 넓은 외연을 가진 다의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신여성을 향한 동경의 시선 뒤에 언제나 있었던 경멸과 조소를 표출하는 출구가 된”(290쪽)다. 모던걸이 논의되면서 연애 역시 1920년대 중반이 되면 퇴폐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의미론적 변화를 겪는다. 이와 함께 신여성은 “옛보기의 시선과 허구적 가공성을 사실의 차원으로 덮어버리는 발화형식”인 정탐기와 보고형 서사를 통해 옛보기와 소문의 대상이자 산물이 된다.

신여성 담론에 의해 모던 걸이 서구 근대에 대한 모방의 나쁜 측면으로 상징되었다면 양처와 주부는 규범적 신여성의 상으로 정립된다. 저자는 “1920년대 말에 확산된 양처현모이념과 주부 논의는 근대적 삶의 전형으로 따라야 할 모범적 상으로 제시되었고, 논의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열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369쪽)고 보면서 “중요한 것은 현모가 양처라는 근대적 지위에 부속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대적 주부술을 획득하고 성적 매력으로 무장한 양치의 호명은 격언류의 기사와 처세담, 주부독본 등의 기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저자는 신여자, 모던걸, 양치 등으로 재편되는 비서구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은 서구 제국 영국, 비서구 제국 일본, 비서구 식민지 인도, 반 식민지 중국의 신여성 담론과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신여성 현상은 여성중등교육의 확산과 신중간층 여성의 대두, 참정권 운동 같은 여성 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반면 인도와 중국과 같은 식민지 사회에서는 소수의 지식인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신여성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지만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층이 매우 빈약했다는 것이다. 서구 제국에서 재현된 신여성의 형상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에 대한 위반과 도전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비서구 사회에서 신여성은 남성성에 대한 공격이나 남성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인도와 중국에서 신여성은 전통과 근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대립을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서 역할 한다. 한편 중국에서 모던걸의 서구성이 양가적 욕망으로 구현된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신여성의 서구성이 반(反)식민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는 의미론적 질서에 따라 규율과 질서라는 덕목에 한정된다.

이러한 비교사회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1920-30년대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적 열기와 지속성이 “잡지 출간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아니라 신여성 담론에 부과된 문화정치적 기능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조선의 신여성 담론에서 신여성은 “아만과 문명, 전통과 외래=서양/일본, 민족 본질과 차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서 “여성으로 대표되는 후진적 조선의 민중을 계몽하고 ‘근대성’의 경험을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정체성과 변화방향을 가늠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455쪽)는 것이다. 신여성 담론은 1920년대 등장한 남성 신지식층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조선 사회의 개조라는 시대정신, 구질서로부터의 자유와 인

격의 존중이라는 관념을 중시하는 가운데 “신여성의 재현은 스테레오타입화 되”는데, 이는 식민지 남성 신지식층이 “신여성 자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신여성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으며, 신여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기능해보고자 했”(458쪽)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여성이 식민주의적 정치로 전환되는 방식 가운데 인도의 경우 여성을 사회적 후진성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해 여성을 민족적 차이를 재현하는 본질적 문화의 담지자로 만드는 민족주의 담론 지형으로 옮아간 반면, 조선에서 신여성 담론은 “식민주의적 문명개화론에 대해 민족주의적 지향보다 근대주의적 지향을 강하게 표명한 지식인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투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461쪽)고 본다. “조선의 신여성 담론에서는 서구와 식민지 사이에 차이를 구축하기보다는 문명개화를 향한 모방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심적인 문제였다.”(462쪽)고 해명하면서 저자는 조선의 신여성 담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백인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이 백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더 백인이 되고자 하는” “과농이 주목한 식민지인의 편집증적 주체에 더 가깝다”(470쪽)고 결론 내린다. “신여성의 형상은 문명화 담론과 식민지병합이 만들어낸 자기부정의 트라우마에서 출발한, 서구/일본 근대성을 향한 규범적 태도와 매혹됨 그리고 강박적 모방의 욕망을 표현한다”(471쪽)고 보면서 저자는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은 보편적 근대성의 지표이기보다는 근대의 과잉을 재현한다”고 의미매김하고 있다.

## 2. 《신여성》, 해석의 과잉

1920-30년대 신여성 담론의 열기와 지속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

고 신여성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신지식층의 서구/일본 근대성에 대한 강박적 모방 욕망을 ‘근대의 과잉’으로 의미매김 하는 저자의 작업은 새롭고 흥미롭다. 저자의 관점은 신여성의 실체를 문제 삼지 않으며 담론 생산자로서 잡지 《신여성》의 필진과 편집자군(남성 신지식층)의 욕망을 문제 삼는다.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신여성 담론은 사실상 개벽사에서 나온 잡지 《신여성》의 산물”(454쪽)이라고 단정하는 저자는 1920-30년대 신여성 담론장에 있어서 《신여성》이 가진 독점적 위치를 상정한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은 분석의 편이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해석의 정당성이란 부분에서 의구심을 낳는다. 저자는 “조선의 신여성 담론이 개벽사의 편집진이 추구했던 발간의 정신과 지향성 위에서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이는 잡지 《신여성》 담론에 대한 해명일 뿐 ‘신여성’ 담론 일반에 대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 1920-30년대 이광수나 염상섭, 김동인, 나도향, 나혜석, 이상, 이태준 등이 생산해낸 다양한 소설 텍스트의 문제를 간과할 뿐 아니라 동아, 조선, 조선중앙, 시대일보 등의 신문지상에서 이루어진 신여성 담론들 역시 제외하는 까닭이다. 소설과 신문의 신여성 담론(1920년대 소설과 신문 기사에서도 신여성은 주요한 재현의 대상이다.)을 제외한 채 신여성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발견의 공리는 곧 은폐의 공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 따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소설 텍스트를 염두에 둘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가령, 이광수의 《무정》 등에서 재현되는 오누이 관계(동맹)는 이미 사제관계(통제 감시)를 내포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1920년대 개벽사의 ‘여학생’ 호명이 새롭다고 볼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양처의 형상이 주부술과 성적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신여성을 서구 근대에 대한 긍정적 모방으로 정립하는 주체의 욕망을 보여준다고 간주하지만 《불멸의 함성》, 《화관》, 《제 이의 운명》 등 1930년대 초 인기를 끈 이태준의 장편소설들에서 양처로서의 신여성은 주부술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계몽 사업의 동반자(누이)로서 그려지지 않는다. 저자는 “모던걸이 분리되고 배제된 ‘타자’로 안착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342쪽)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모던걸은 서양 근대를 향한 모방의 나쁜 측면으로 상징화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매혹됨을 역설적으로 투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이 책에서 매혹됨의 현상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신여성》의 담론 속에서 과연 신지식층의 서양 근대를 향한 매혹됨이 모던걸에 투영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는 《신여성》의 문예란을 검증하지 않은 저자의 한계가 아닐까. 《신여성》에 연재된 이효석, 이서구, 안희남 등의 소설을 통해서 서구 근대의 모방에 대한 신지식층의 매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지적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 이를 바탕으로 한 신지식층의 서구/일본 근대에 대한 강박적 모방이란 결론 역시 성급한 게 되지 않을까. 저자는 “만약 1920년대 초 여성 지식인들이 만들었던 여성잡지가 존속하였었다면, 《신여성》이 없었다면 조선의 신여성 담론은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 여성운동의 이슈가 훨씬 더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거나 아니면 또는 양치현모를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을까.”라는 가정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모성담론의 경우 시와 소설을 통해서 19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 전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신여성》이 양치론을 강조했을 뿐, 1920-30년대 초 신여성 담론 일반이 모성론보다 양치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지 않을까.

잡지 《신여성》의 기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저자는 “통상적인 글쓰기 양식을 참고하면, 논설류, 수필류, 취미기사류, 기사류, 문예류, 사고류, 광고의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읽을거리의 형식과 내용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하면 신여섯 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164~166쪽)고 지적한다. 도대체 저자가 참고한 ‘통상적인 글쓰기 양식’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허구적인 서사물과 기록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서사,

묘사, 설명, 논증이라는 일반적인 진술양식을 참고한 것도 아니다. 문예류에 수필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왜인지, 수필류와 취미기사류는 어떻게 갈라지는지, 취미기사류의 ‘수기, 실화, 보고형 서사, 정탐류’의 기록서사와 기사류의 ‘가십, 탐방’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내용상 좌담이나 설문이 가십이나 정탐류 기사와 달라질 수 있는지 등 의문투성이다. 가장 알 수 없는 양식이 취미기사류인데, 이는 《신여성》 필진의 명명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저자 스스로 취미기사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겠다. 과연 기록서사와 야담, 콩트, 격언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당대 필진이 부여한 대로 ‘교양과 취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문학 연구자이기에 갖게 되는 몇 가지 의구심을 염두에 두더라도 <신여성, 근대의 과잉>은 보편적인 신여성 현상과 지역적 신여성 현상의 차이를 구명하는 가운데, 근대성과 식민성을 분리된 두 개의 상이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인식 체계에 반대하며 조선의 신여성 담론을 식민주체성 또는 피식민지인 정체성의 복잡성 속에서 해명하려 한 저자의 관점에 대한 열렬한 동의를 이끌어낸다. 잡지 《신여성》에 대한 꼼꼼한 독해와 분류작업에는 감탄을 금할 길 없으며, 비서구 식민지 사회(인도, 중국, 조선) 내에서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결론 부분에는 누구라도 깊은 흥미를 갖게 되리라 본다. “신여성은 신여성 담론에 의해서 생산된 특정한 주체 위치를 일컫게 된다. 그렇다면 재현된 신여성, 또는 기호로서의 신여성은 곧 신여성이라는 여성 주체의 등장을 말하는 것인가?”(32쪽) 저자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자 완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규정한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작업은 앞으로도 국문학, 여성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 책(그리고 저자의 차후 연구들)은 그 작업에서 주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